

# 東南亞 諸國의 電子産業 현황

— 台灣 · 홍콩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 1. 台灣

台灣의 81年度 經濟는 80年度에 연이어 低成長에 머물렀다. 81年の GNP는 약 10兆円인데, 이는 현재까지 최고 수준이었지만 前年對比 5.5% 증가의 低率에 불과하였다.

81년에는 台灣 經濟 10個年計劃에 시작 되었고, 이 중에서 電子産業의 위치는, 年平均 伸張率이 18%가 목표이며 90년에는 3兆 8,470 億円の 市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需要 부진, 在庫 증가에 의한 生産 조정은 台灣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81年の 生産을 전체적으로 Slow base로 만들었다. 그리고 黑白TV는 前년에 이어 減産, 마이너스 成長을 보였는데, 이는 Music Center의 증가에 起因한 것이다. 또한 日本系 메이커에 비해서 美国系 메이커의 낙후 현상이 적기 때문에 美国系 메이커 쪽이 流通 在庫가 적다는 사실에도 연유되고 있다.

台灣의 VTR 生産은 현재 日産 규모로는 수 백대로서 82年末까지는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VTR 1대에는 2,400개의 部品이 소요되는데 그 部品の 現地調達은 83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台灣 내의 VTR 需要는 年間 12만대나 되는 데, 通関 統計에 의하면 전년대비 37% 증가로 신장되었다. 현재도 VTR의 需要는 높은 편이지만 Set의 供給에 문제가 있다.

市場 상황은 다소 제품이 부족되는 정도이며, 台灣 業체가 제조한 VTR은 商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技術 개선과 오랜 時間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台灣 당국의 認可도 있는 차제에 日本 家電 메이커의 現地 生産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認可의 條件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自動化, 省力化에 있어서는 Lever Fee와 設備의 償却費 등을 고려한다면 도입의 merit는 적을 뿐만 아니라 技術 변화가 격심한 시기여서 Lot도 적기 때문에 적당한 技術者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定着性이 적은 것도 그 原因의 하나)부터 機械의 稼動率에 難點이 있다고 한다.

또한 設備의 輸入에 있어서 실제로는 增資 등의 義務 조건도 있고 自動化의 設備投資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台灣에는 현재 日本의 部品 業체가 多種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트 業체의 部品 현지조달율이 아주 높다. 한편 日本系 部品 業체는 非價格 경쟁력이 강하다.

〈註: 本資料는 日本電子機械工業會(EIAJ)가 東南亞 각국의 電子産業 現況과 展望을 알아보기 위해 同工業會 산하의 部品運營委員會로 하여금 東南亞細亞電子工業 調查團을 구성, 派遣하여 6月 6일부터 19일까지 調査 報告케 한 것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原文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나 本稿에서는 省略하였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現況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번 調査 訪問시에 실제로 日本 部品 業체에 의한 주요 세트 메이커의 6月 시점에서의 受注 베이스로 본 生産台數는 각 제품이 모두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침체를 배경으로 部品 業체는, 압박을 받는 Cost down 문제는 날로 심해지고 또한 韓國, 日本과의 價格 경쟁 격화, 또한 日本系 세트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것, 즉 日本과 같은 세트를 동일한 시스템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日本 내와 같은 品質과 性能의 요구 등으로 部品 業界는 심각해지는 고뇌 속에 빠져 있다.

納期에 있어서는 날로 短納期化가 추진되어, 部品 業체들도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業체間的 격화가 크므로 日本측의 지도와 援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台灣의 勞動 環境은 다방면으로 變革期를 맞고 있다.

지난 5年 사이에 倍로 인상된 바 있는 대폭적인 賃金 上昇을 82년에는 10% 미만의 引上으로 묶으려 하고 있다. 週 2日 休務制는 景氣 回復時에 勞動者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條件이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제 2의 電子工業 生産 규모를 지니고 있는 台灣은 日本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는 것은 변함없다. 그렇지만 台灣의 세트 제품은 品質, 價格面에서는 日本 제품에 비해서 레벨이 다소 낮고 品質面에서는 韓國보다 높다.

品質, 價格, 納期 어느 것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지만, 素材의 精度를 높인 加工 技術, 省力化를 활용한 組立 技術, 治工具 및 省力機器도 수입하지 않고 台灣 자체적으로 제작한 治工具 등을 약진하고 있는 종합적 生産 技術力을 강화하는 일이나, 量産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 온 종래의 생산 방향에서 독자의 開發品에 대한 經營志向의 및 知識集約 産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등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台灣의 電子産業이 장래가 밝다는 것을 알게 된다.

## 2. 香港

과거 5年間に 걸친 景氣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対応力과 적응력 (Flexibility)을 발휘해 온 香港은 순조로운 成長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香港의 家庭用 電子機器 生産도 他國에 비해 예외는 아닌지, 81년부터의 세계적 不況을 이겨내지 못하여 81년의 라디오 총수출량은 5,700만대에 39億 2,400만 HK\$을 기록, 80년 대비 수량, 金額 각각 8%, 1.3%의 감소 현상을 면치 못하였다.

Radio Cassett는 총생산의 60% 이상이 Stereo 타입이다. 그리고 각종 Feture를 구비한 開發 혹은 Minicomponent라고 할 수 있는 高級 機種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部品를 尙日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車載用은 특히 不況下에서는 경쟁력을 잃어서 전년 대비 50% 감소라는 극단적인 生産 수량의 低落에 처하였다.

TV는 예외적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 현상을 보였으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겨우 36만 1,000대에 지나지 않았다. TV 生産은 高附加 價値의 製品化 시도는 선진의 韓國, 台灣,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企業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낙관하기 어렵다.

금년 香港의 電子産業은 81년과 엇비슷하여 16%의 伸張率이 예측되고 있으나, 家庭用 電子機器는 전체적인 不況의 영향을 받아서 불투명하며 歐美의 景氣 회복 지연에 따라 81년의 수준을 밑도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portable Radio는 中共과 後進國을 상대로 하여 加工 輸出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Radio Cassett는 市場이 회복되면 81年度の 생산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製造企業도 해마다 저하되는 附加價値의 危機感을 갖기 시작하였고 中堅 이상의 企業에서는 personal Computer, Mini Computer, 電話機 등 신규 産業用機器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香港의 音響機器 제품의 生産은 축소 삭감의 方向으로 나아가지 않는 生命力(Vitality)은 他國의 企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바로 그 때문에 세계 제 1의 生産 數量의 지위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豫상된다. 거기다가 流動的이라고는 하지만 거대한 잠재력(potentiality)을 지니고 있는 中共과 접근해 있는 香港은 完製品 輸入禁止나 CKD 輸入規制 등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交流를 深化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産業用機器는 Personal Computer, Mini Computer의 生産은 이미 小規模로 시작하고 있으나 금년 後半서부터 83년에 걸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이 豫측되고 있다.

이러한 機器로의 접근(Approach) 형태는

- (1) 歐美 메이커 生産거점으로서의 진출,
- (2) 音響機器 메이커의 Post Audio 전개,
- (3) Digital 機器 메이커(時計, 電卓, TVGame)

의 전개 등 3가지 패턴으로 나눈어진다.

OEM 端末機器의 下請生産이 主体를 이루고 있으나 計酬中에 있는 일을 종합하면 83年度에는 상당한 규모가 되어 金후 香港 電子産業의 장래를 좌우하는 轉機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部品 需要는 81年 후반부터 활발해진 中共行 TV, Radio Cassette의 CKD 輸出 특별 需要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金년 2월에 갑자기 실시된 CKD 輸入規制로 인해서 金후의 予測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 있다.

對中共 CKD 輸出에 관계가 깊은 企業은 出荷를 기다리는 在庫더미를 안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 在庫 조정 때문에 部品 需要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金년 후반도 歐美 經濟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 없자, 部品業界는 고통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음향기기용 部品の Cost down 要求는 한층 業界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韓國, 台灣産의 低價格 部品과 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日本系 部品業界는 한층 더 어려운 立場에 처하게 되었다.

역시 中共의 輸入規制에 대해서는 그 規制의 實態를 분석하고 있지만, 金후 어떤 方向으로 사태가 進展될 것인가는 豫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中共에 있어서도 電子産業은 近代化의 중요한 基盤의 하나로써 役割을 하고 있는 香港을 통해서 部品 単體 輸入 需要는 金후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싱가포르

高成長의 模範生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生産加工基地 싱가포르의 電子工業은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17%로서, Audio, Radio 등 音響機器의 構成率이 높고, 그 중 歐美에 대한 輸出依存도가 크기 때문에 세계 不況의 影響을 정면으로 받아, 東南亞 諸國 中에서도 가장 빨리 심각한 구조적 不況에 빠지게 되어 그 나라의 經濟 成長과 전혀 다른 狀態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影響이 많은 Audio 業界는 81年 후반부터 30~50%의 生産 調整에 들어가 金년 후반의 豫상도 불투명하고 다달의 生産도 一進一退와 先行되는 不安으로 인해, 작년 실적의 달성률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로지 밝은 분야로 손꼽히는 材料 분야는 이같은 상황하에서도 巨額의 投資를 행하여 金년 신규로 增産을 계획하고 있는 音響 메이커와 半導體 메이커의 진출과 電子 Range와 Airconditioner 등의 家電機器의 生産이 好調를 보이고 있다.

資金의 상승률은 金년도 81年과 같아서 13~14%로 실시되고 있다. 직장의 定着率은 다소 안정된 젊은 世代의 제 3次産業에 대한 동경으로, 電子工業은 80년에 비해서 약 30%의 人員이 부족되고 있다.

市場의 침체와 需要 불안정으로 인하여 小種多樣化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部

품을, 日本을 위주로 하는 對外 조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동적인 市場 需要에 대응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바야흐로 싱가포르, 高賃金과 병행하여 勞動 集約型 産業이 환영받고 있는 기타 東南亞 제국 으로부터 攻勢도 있어 이제는 高度 技術, 高附加 價值 産業으로 변모해 가려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진출 業体에 있어서도 自動機械化는 최대의 課題이며 基板 組立은 Insert Machine의 導入에 있어서 品質管理上 결함이 없는 新銳機種으로 선정되고 있다.

반면에 Insert Machine을 도입하는 것은 計 剛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 유지보존(maintenance)와 消化 lot가 적은 문제가 있고 技術者에게도 일을 못 대주거나, 다액의 設備投資를 해서 도 減價償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낮은 賃金を 구해서 다른 東南亞로 拠点を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견해도 있다.

싱가폴의 電子工業은 輸出 加工基地로부터 高度 技術産業基地로 변천되기 시작하였지만, 素材産業과 製品 메이커의 育成, 下請 주변 企業이 中國系 住民의 資本으로 좌우되는 것과 그 未熟性을 고려한다면 短期的으로는 최근의 電子 工業에 奇跡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이번 調査團이 방문했던 各社 에서는 특히 품질, 技術에 있어서는 日本의 品質 Level과 동등하였으며, 現地の 立地條件과 생산 환경을 이유로 하여 품질을 희생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海外拠點에 대한 品質管理상의 勞苦를 덜 수 있었다. 峇厘 州, 쿠알라룸푸르에 인접한 檳榔嶼, 가랑의 Free Trade Zone에 세계의 半導體 메이커가 진출하여 세계 Silicon Valley Land로서의 電子工業으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半導體 供給基地가 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도 세계 不況의 파도에 밀려 제 1 차 産業 제품 가격이 예상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工業化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企業들은 現地の 어려운 立地條件 가운데에서도 세계 市場에서 겨룰 수 있는 國際競爭力을 기르면서 다른 開發途上國 과 앞서 가고 있는 先進國의 사이에 서서 극심한 攻勢에 맞서 싸울 힘을 기르고 있었다.